

# 技術·産業社會에서의 大學 狀況\*

## —大學의 社會史(4)—

李 光 周

(全州大 社會教育學科)

.....  
 현대를 특징짓는 것은 고도의 기술산업화 현상과 대중사회적 상황이다. 그 결과 현대 기술산업 사회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이른바 멀티버시티, 즉 多元大學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산업 사회 상황 속에서 의 대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의 전망은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물음과 깊이 관련되어 행해져야 한다.  
 .....

### 大學의 社會史

1. 中世 大學 성립과 새로운 知的 狀況
2. 近世 大學의 형성과 그 沈滯
3. 베를린大學과 '學問의 自由'의 문제
4. 現代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

#### 1. '象牙塔' 아닌 '學位 판매소' ?

앞의 글(〈베를린大學과 '學問의 自由'의 문제〉)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학문의 자유의 이념은 갖가지 우여곡절—1812년의 피히테의 베를린

대학 총장직 사임 사건, 1819년의 본(Bonn)대학의 역사학 교수 아르트와 쉬라이에르마헤르의 戒告 처분 사건, 1837년의 괴팅겐대학의 7교수 추방 사건 등—을 거둬하면서도 19세기 후반에는 일단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887년 고명한 생리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헬름홀츠(H. von Helmholtz)는 그의 베를린대학 총장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오늘날 독일 대학에서는 유물론적 형이상학의 어떤 극단적 단정도 또 다아윈의 진화론을 논거로 하는 어떠한 대담한 사유도 교황의 완전무오성에 관한 극단적 신격론과 같이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 원래는 '現代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이라는 논제하에 논술할 예정이었으나 그것은 다음 호에 다루기로 하고 본고를 먼저 게재함.

강의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의 문제와 더불어 근세 대학이 극복하여야 하였던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을 둘러싸고 학문과 교육이 놓여 있었던 전근대적 침체의 상황이었다.

중세 대학이 일정한 학습가 없이 교수나 학생의 자택을 전전하면서 강의를 행하였다 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17세기 절대주의 시대에 있어 독일의 경우 대학이 왕권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국가의 시설이 된 시대에 있어서도 그 교육 환경은 극히 빈약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의 1617년의 학칙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가리지 않고’ 교수가 자택에서 강의를 금하고 있다. 한편 1683년의 하이델베르크대학의 학칙은 교수들에 대해 ‘추울 때는 강의를 자택에서 행함’을 허용하고 있다. 16, 17세기에 正課 강의(collegia publica)는 본래 대학 소정의 강의실에서 행하는 규칙이었으며 그에 대해 과외 강의(collegia pulivata)에 한해서는 교수 자택에서 행하는 일이 허용되고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빈약한 교육 환경은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18세기말에 이르러서도 16세기적 상태에서 벗어난 학교는 독일의 경우(유럽의 그밖의 나라의 경우도 유사하였거니와) 겨우 몇 개 교밖에 안 되었다. 루르 지방의 중심 도시인 에센의 어느 김나지움(Gymnasium, 국민학교 4년 수료 뒤 진학하는 9년제의 인문 고등학교)은 그 하층이 맥주와 브랜디의 저장고였고 그 상층에는 육군 병원이 들어 있었다. “나의 학교는 그리스도교도의 자제를 위한 교육의 장이라기보다 마구간에 가까웠다”라고 帝國 都市 가이스린겐의 한 교육장은 슬회한 바 있다. 그러나 김나지움의 존재는 그 도시의 위신을 적지않이 높였다. 시설과 비슷하게 教師들의 자질이나 사회적 지위도 말이 아니었다. 18세기에 있어 교직은 여전히 독립된 전문직이 못되고 중세와 다름없이 성직자 혹은 성직 후보자가 거쳐가는 직위이거나 혹은 다른 일에 실패한 사나이들의 호구지책으로 생각되었다. 프로이센 민덴의 김나지움의 경우를 들어 18세기말의 독일 김나지움의 실상을 살펴 보자.

그곳의 교사는 6인이었다(교장·부교장·교장 대리·2인의 보조 교원·1인의 합창 지휘자). 그들은 주당 20~25시간 수업을 하였으며 교장은 15시간이었다. 이들 교사들은 남의 집에 기식하고 있었으며 모두가 가난하여 학교의 출납계, 市의 경리계, 遺贈金으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렸으며 그들은 또 聖歌의 합창, 장례식의 잡무, 가정 교사 등으로 부수입을 올렸다. 그들의 아내들은 ‘기아의 불안’에서 해방되지 못하였다. 63세의 교장의 연봉은 441탈레르(Taler), 35세인 교장 대리는 240탈레르 그밖의 30세 안팎의 교사들의 연봉은 150~170탈레르로 이 금액은 부유한 집안 출신인 괴팅겐대학의 법학부 학생들의 생활비의 약 4분의 1에 맞먹는다. 당시 학교의 경영 관리는 대체로 교회의 기관이나 도시였다. 그리고 수업의 감독 및 교사의 임용은 州 宗務局 아래 이루어졌으며 주 종무국은 그 권한을 그 지역의 최연장의 심판자에게 위임하였다. 18세기의 저명한 인문주의 사상가인 헤르더는 라틴어 혼련을 주 과제로 한 김나지움을 비판하여 ‘내용이 없는 소인배’, ‘쓸모 없는 괴변자’를 배출한다고 비난하였거니와 김나지움의 교과과정(1836~’59년)은 라틴어 33%, 그리스어 13%, 프랑스어 6%(영어는 없음), 독일어 7%, 수학 12%, 자연과학 5%였다. 이렇듯 대체로 고전적 교양에 중점이 주어졌다.

이 학교의 생도 수는 전부 97명으로 그들 중 1787년을 기준으로 2년 동안에 이 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한 생도는 겨우 5명에 지나지 않는다. 김나지움의 졸업 시험(Abitur)을 거쳐 졸업증을 취득한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을 프로이센의 경우(1789~1807)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관료·의사·장교·교수     | 40.1% |
| ② 성직자(신·구교)·학교 교사 | 32.5% |
| ③ 상인·공장주          | 6.3%  |
| ④ 수공업자·장인         | 19.4% |
| ⑤ 농장주             | 1.7%  |
| ⑥ 귀족              | 4%    |

①, ②의 직종은 대학교육을 받은 이른바 ‘akademiker’로서 그들의 자제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김나지움 졸업생의 72.6%를 차지하였다. 귀족

자재의 4%는 귀족의 대부분이 가정 교사를 고용하여 자제들을 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음을 새삼 말해 준다. 한 나라, 한 사회의 교육 이념은 그 나라, 그 국가의 체제의 성격을 말해주는 동시에 교육 체제와 그 내용은 또한 국가 사회의 계층 구조를 반영한다라고 할 것이니, 독일에서의 김나지움 진학자 및 졸업생 출신 계층의 분포는 바로 독일 사회의 전근대적인 신분 사회의 성격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김나지움 학생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출신 계층을 살펴 보자. 중세 시대에는 어느 의미에 있어 대학이 가난한 계층에게도 널리 개방되고 있었으나 근세 이후 점차로 상류층 및 부유한 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귀족과 상급 부르조아지 출신에 의해 독점된 영국의 옥스-브리지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독일 베를린대학 학생의 출신 계층은 참고로 <표 1>과 같다.

<표 1> 베를린대학 학생의 출신 계층

연도	계층(%)	A	B	C	(계적학생 총수(명))
1810		46.9	24.9	28.2	—
1820		45.4	30.1	24.5	910
1840		47.9	31.8	20.3	2,069
1900		33.8	40.5	25.7	12,063

∴ 계층 A—고급 판터·성직·변호사·교수·의사·장교·기사·예술가 등  
 계층 B—대상공업자·지주·금리 생활자  
 계층 C—중·하급관리, 초등학교 교사·장인·농민

독일의 대학은 19세기 이후 날로 일부 귀족층과 부유층 자제들의 학원으로 변모되어 갔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선민 의식도 높아졌으며 대학과 국가는 그러한 의식이나 우월성을 제도적으로 또한 뒷받침하였다.

피히테는 수도원의 제도를 본 받아 대학생을 정규생(regulare)·정규생 지원생(후보생, Kandidat)·부속생(irregulares)으로 구별하였거니와 이들은 저마다의 제복에 의해 구별된다. 이 초대 베를린대학 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정규생의 우월성이 의견상 보이도록 그들에게는 제복을 입히는 것이 좋다. 그 제복은 정규생과 정교수 이외의 아무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제복의 제도는……다른 학생 대중(publikum)

사이에 그 제복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조장하고 확립할 것이다.

부속생은 우리들 시설(대학을 말한다)의 본래의 구성원도 경주 시민도 아니므로 일반 경합의 대상이 된다.

이 학교를 충분히 이용한 증명을 얻은 자는 국가 최고 관직의 임용에 있어 타인들보다도 우선된 것이다(그들은……귀족도 될 것이다).”

정규생들에게는 그들의 출신 계층에 알맞은 그리고 독일 제국에서의 미래의 사회적 상위 신분 에 알맞은 명예(point d'honneur)가 무엇보다도 요구되었다. 국민학교 4학년을 마치면 대체로 그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김나지움 진학 혹은 實科學校(Realschule) 진학이 결정되는 교육의 가혹한 차별 체제, 그리고 대학생도 정규생과 부속생으로 구별되었던 고등교육의 배타성과 권위주의는 교수를 정교수(ordentliche professor)와 원외 교수(ausserordentliche professor)로 차별한 교수 체제에서도 나타나거니와(19세기에 있어 원외 교수는 부속 학생에 대해서만, 그것도 감시원 입회하에 강의할 수 있었다), 프랑스 혁명을 체험한 저 오래된 자유주의와 인민주권 사상이 시대의 지도 이념으로 풍미한 19세기 후반에 있어서조차 독일 대학은 길드적인 엄한 계층 조직과 차별 의식 및 권위주의가 지배하여 어느 영역보다도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 속에 놓여 있었다.

이제 우리들은 근대 독일의 대학을 둘러싼 지식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18세기 독일의 독서조합(Lesegesellschaft)에 관해 살펴 보자.

독서조합은 원래 18세기 중엽 계몽주의의 사조 속에서 발족하여 19세기에도 신문·잡지·서적의 공동 구매 및 그 유통을 목적으로 독일 여러 지역에 많이 만들어진 교양인들을 위한 조직이다. 18세기 '70년대에는 북부 독일에 그리고 '80년대에는 남부 독일에도 확산되고 독일 계몽주의가 전국적 규모로 보급된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는 그 조직의 수는 독일어권 전역에 걸쳐 600개소 이상을 헤아렸다고 한다.

그러면 그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 예로 본市的 독서조합의 회원 167명(1787~1794)의 경우를 살펴 보자.

① 귀족	49(30%)
② 시민	118(70%)
{ 관료	65(39%)
{ 신학자·성직자	25(15%)
{ 교수	19(11%)
{ 기타	9(5%)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 계몽주의와 지식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대학 진학자의 경우와 같이 시민 계급 출신의 관료 엘리트와 전문가 집단 및 귀족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8 세기의 계몽 사상을 표방한 한 월간지 *Nieder-rheinische Monatschrift* 예약자의 다음과 같은 사회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① 귀족(이 중 관직 귀족 8)	13(13.8%)
② 시민 관료	23(24.5%)
③ 교수·의사	15(16%)
④ 성직자·신학자	13(13.8%)
⑤ 예술가	1(1.1%)
⑥ 시민적 직업	3(3.2%)
⑦ 학생	7(7.4%)
⑧ 부녀자	1(1.1%)
⑨ 기타	18(19.1%)

이 잡지 구독자의 신분 구성에 있어 특히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전 예약자 중에서 7.4%를 차지한 학생층의 수치이다. 7.4%의 수자는 많은 것일까? 아니면 적거나 혹은 적당한 수치일까? 당시 학생층의 지식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자.

유럽 대학사 연구에 있어 고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니플(H. Denifle)은 그의 명저인 「*中世大學의 성립*」(1885)에서 “16, 17 세기에는 강의 를 하는 대학 직속의 교사 확보는 극도로 어려웠고 대학은 한때 ‘엔터리’ 학위의 판매 기관으로 타락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언급은 베를린대학 창설 이전의 유럽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헤아리는 데 적지않은 시사를 준다.

데니플이 지적하였듯이 대다수 학생들의 대학 진학 동기는 교회 성직자가 되기 위함이었으며 교회에의 문호는 18세기 이전에 있어서는 바로 직업인애의 문호를 의미하였다. 독일 대학사의 권위인 파울젠(F. Paulsen)이 적절하게 표현하였듯이 근세까지만 하여도 대학을 포함하여 각

급 학교는 교회의 현관이요, 교사들은 대체로 이 현관을 통해 성직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특히 알 프스 이복의 각국에 있어서는 중세 시대 교회가 바로 직업의 동의어가 되고 있어 국왕의 고위 관 리나 외교관, 유력한 귀족의 고문이나 비서, 의 사, 건축가 그리고 한때는 세속의 법률가 혹은 중세를 통해 큰 파위 집단이었던 교회 법률가의 거의가 성직자였다. 17, 18세기 절대주의 시대에 있어 신학부에 대신하여 법학부가 대학의 중심 학부가 되었다고는 하나 대학의 학문적 수준은 여전히였다.

대학의 “강좌는 재정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고 교수들은 학생 1인당 半 노를 金貨의 사례로 생 계를 꾸렸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학위 시험관에 대해 ‘대학을 축소시키기보다도 발전시키 기’ 위해 ‘엄한 法보다도 연민과 관대함을 취 지로 가능한 한 온정과 자애로써’ 學士 지망자들 을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규약이 있 어도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데니플은 또 부 언하고 있다.

‘옥스포드에 오는 자는 많으나 우둔한 체 돌 아간다’는 말이 18세기에 있어서는 널리 일컬어 졌거니와 당시의 저명한 사상가나 과학자로서 대 학의 교수를 지낸 인물은 거의 없다. 그뿐만 아 니라 17, 18세기의 지식인(교양적 인간)을 14세 기의 지식인과 구별짓는 것은 주로 그들이 대학 밖에서 지식이나 교양을 쌓았다는 사실이다. 대 학이 학문의 상아탑도 지식의 연금장도 되지 못 한 주요한 원인으로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교 사의 학문적 능력 문제이다. 당시의 교수의 무 능과 태만에 관련하여서는 *大學史*上 갖가지 논 의가 있거니와 첫째로 생각되는 것은 교사 선발 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 학 교수의 초빙이나 임용은 독일의 경우, 정부 에 의해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 학부의 제 청에 의한 경우 ‘학문적 업적보다도 때때로 혈 연 관계나 交友 관계가 행세하고 그것들을 기초 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미 그 명성이 높았던 칸트가 私講師(privatdozent, 일반적으로 무급) 15년 뒤에야 정교수가 된 것도 교수 인사의 閉 關의 등용의 폐해 때문이었다.

교수들의 과다한 강의 과목과 그 시간 수도 학

문의 발전을 크게 가로 막았다. 강의 시간 수는 보통 주당 20~25 시간이었다. 칸트의 경우는 26~28 시간이나 되었으며 그는 논리학·형이상학·철학제과집성·인간학·도덕철학 이외에도 교육학·자연신학·수학·자연과학·자연지리학까지도 강의하였다. 교수와 학문의 전문성이 아직도 확립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강의 시간 수가 김나지움 교사와 다름이 없었듯이 그 처우도 별로 차이가 없었다. 칸트가 재직하던 케니히스베르크대학의 교수 연봉은 평균(1785년경) 250 탈레르였으며, 1770년에 정교수가 된 칸트의 초연봉은 166 탈레르에 불과하였다. ‘박학한 프롤레타리아’였던 교수들은 겸업하거나 정규 강의보다도 청강료가 생기는 私講義에 열중하고 매일 보통 5~7 시간이나 강의하였다. 교수들은 그들이 누렸던 사회적 존경과는 전혀 판이하게 경제적 가난에 시달려야 하였던 것이다. 독일의 대학 교수들이 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균형을 이루는 경제적 처우를 누리게 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이제 우리들은 학생들에 대해 살펴 보자.

셀스키(H. Schelsky)는 그의 역저 「교육과 자유——독일 대학의 이념과 모습 및 그 개혁」(1963)에서 근세 독일 대학의 학생 풍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들은 17, 18 세기의 대학생들을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불한당’의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귀족의 풍습을 흉내내어 결투를 하기 시작하고 선술집에 들어 앉아 폭음하고 혹은 劔을 차고 무리를 지어 큰 소리로 소동을 피우고 내노라하며 거리를 활보한다. 대학 강의에는 겨우 2, 3명만이 출석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이없는 일에 정신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여러 대학, 그리고 옥스—브리지에 있어서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18세기말의 옥스포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시험을 받는 불쌍한 젊은이들은 학문에 관해서는 下女들보다도 아는 것이 없다. 또 시험을 실시하는 교사들이라고 하여 별반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각 학과 마다 40 내지 50 정도의 문답책이 대를 이어 인계되고 있다. 그리고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수

험생들은 3~5일 동안 문답집을 그냥 그대로 암기하고자 덤빈다. 한편 시험관들도 시험이 가까워지면 똑같이 이것을 그대로 암기하고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 좋을가 하고 공부한다. 이렇게 하여 단사가 원활히 진행된다. 그리고 그 시험장에는 시험관과 수험생 이외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시험이라고는 하나 시험관, 수험생 가릴 것 없이 전번에 슬마셨을 때의 덕없는 소란이라든가, 말(馬) 이야기 따위의 잡담을 나눌 뿐이다. 혹은 신문이나 소설을 읽고 끝나는 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되면 전원 해산하고 學寮長(master)이 졸업증서에 서명하게 된다.”

위의 이야기는 옥스포드大學史에 분명히 인용되어 있는 구절이다. ‘학문의 전당’은 오랜 시대에 걸쳐 단지 학위의 판매소에 불과하였던 것 같다. 다음의 인용은 17세기 프랑스의 대학에 관한 기록이다. 1628년 태생의 샤를 페로라는 사나이는 어떻게 법학을 배우고 그 학위를 취득하였던가?

“……페로의 시대에는 전혀 사정은 달라졌다. 법률을 배우기 위해 (이전처럼) 사람들이 법학부가 있는 대학 도시에 가는 일은 이미 없었다. 페로도 또 3년간 법학의 개인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그의 시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래의 법학자를 지망하던 법률가·재판관을 지망하던 모두가 이곳 저곳의 개인 교수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인 수업을 받고 공부하였다. 대학의 법학부에 가는 목적은 단지 學士號를 손에 넣기 위함에서였다. 학사 시험은 단지 장식일뿐 형식적 면면에 지나지 않았다. 그만큼 대학 법학부는 퇴폐 속에 있었던 것이다……. 밤중에 찾아와 돈만 있으면 즉시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그리고 시험 성적보다도 배후에서 소리를 내는 금화가 시험관을 사로잡았다.”

라고 이 기술은 전해준다.

대학 도시인 독일의 예나에서는 학생들의 방자함을 ‘예나적 행태’라 하여 세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며 슈라이에르마헤르도 학생들의 파렴치한 생활 태도, 하급생에 대한 상급생들의 비인간적 폭력 행위(pennalismus), 야만적 결투의 인습 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베를린대학의 피히테는 무질서한 학생들의 행태를 바로 잡고자 설교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은 그에 반

발하여 피히테 집에 돌을 던지고, 그로 인하여 피히테는 주기를 이웃 마을에 옮겨야 하였으며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못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학생 생활의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학생들 내부에서 일어났다. 1815년 예나에서 발족한 프로테스탄트계의 범독일적인 학생 조합, 즉 부르셴샤프트(Burschenschaft) 운동이 그것이다. 이후 이제까지 독일 학생들의 난잡한 생활의 터전이었던 학생국민단은 점차 퇴색되고 학생들은 독일 내셔널리즘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게 되는 동시에 독일 대학은 19세기 과학혁명의 빛나는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대학의 변화에 관해 생각해 보자.

## 2. 베를린大學 모델과 科學革命

기술산업화 사회의 대두에 의한 대학의 충격적인 변모에 관한 논의에 앞서서 우선 언급되어야 할 것은 19세기의 과학혁명이다. 이 과학혁명은 많은 경우 독일 대학을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 있어 유럽 과학의 센터는 프랑스의 파리였다. 생리학의 분야에서 예를 들면 19세기 최초의 24년간 83건의 독창적 연구 중 30건(36%)인 프랑스 국적 과학자의 업적에 속하였다. 물리학의 경우도 프랑스가 영국, 독일보다도 단연 앞선다. 이러한 프랑스의 우위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 사상의 풍토와 경험적인 실험 과학의 전통, 그리고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성격과 밀접히 관련된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과학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폴레옹의 제국대학(université impériale) 제도하에서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기능별 전문학교가 발달하였거니와 그에 앞서서 1794년에 혁명 정부는 파리에 高等理工科學校(Ecole polytechnique)를 설립, 유럽 최초로 대규모의 실험 과학 연구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고등이공과학교의 개교시 학생 수는 400인이었다. 이 학교를 중심으로 과학적 전문 학교들이 아카데미와 손을 잡고 국민적 기반 위에 성장하였다. 그 결과 과학 보급이 날로 지식 사회에 침투되고 상류 사회에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영국과는 대조적이다. 근대 과학은 뉴우튼

의 모국에서 첫 걸음을 디디었으나 체계적 과학 연구의 최초의 조직체는 프랑스 아카데미였으며 과학의 여러 원리를 산업에 응용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것도 프랑스 학계였다.

그러나 1825년을 고비로 독일은 프랑스를 걸차 뒤로 제치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유럽 과학의 선두 주자가 된다. 생리학의 경우 19세기를 통해 독창적 연구의 3분의 2가 독일 생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물리학에 있어서도 프랑스와 영국을 앞선다. 19세기초만 하여도 유럽 과학계의 후진국으로 프랑스어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파리 학계의 동향에 크게 관심을 지녔던 독일 학계의 그 놀랄 만한 비약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생각되어야 할 것은 독일 학문에 독특한 'Wissenschaft'의 개념이다. 'Wissenschaft'는 'science'와는 달리 첫째로 지식의 철저한 객관성 위에 이루어지며 그 객관성은 또한 지식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학문(과학)으로 하여 진정한 학문(과학)으로 하는 이 'Wissenschaft'가 요구하는 객관성과 비판 의식은 독일적 기질인 '철저함'(Gründlichkeit) 위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 그 출발이 된 것은 독일 인문학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처음으로 시도된 언어의 과학적 연구, 즉 문헌학이었다. 1780년에 괴팅겐대학의 아이히호른(J.G. Eichhorn)에 의한 「舊約聖書의 역사적—비판적序說」은 그 최초의 대표적 업적이었으며 근대 역사학도 '그것이 본래 어떠하였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함을, 즉 역사적 세계의 객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한 랑케의 'Wissenschaft'의 정신 위에 비로소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Wissenschaft'의 개념과 정신은 이렇듯 학문과 지식 그리고 학자와 연구자의 종래의 성격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독일 대학이 '철학으로서의 학문에 의한 교양'이라는 훔볼트 이념과 관련하여 연구를 통한 교육이라는 지난 날의 대학의 교육 이념과는 차원이 다른 이념을 새로이 표방함으로써 대학이 연구의 장으로 높여졌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Wissenschaft'의 정신이 패턴이 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대학사상 19세기는 연구 대학의 출현과 그것을 통한 학문 연구의 전문화가 실현된 시대로 기록되거나 그 선구적 기능을 베를린대학이 다하였음도 등 대학이 'Wissenschaft'의 원리에 의해 영도된 최초의 근대적 대학이라는 점에 있었다라고 할 것이다. 이제 베를린대학의 도법을 따라서 점차 대학은 학문의 연구와 교수의 장이 되어 갔다.

이제 우리들은 학문의 연구와 교수의 장으로서의 베를린 모델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훔볼트의 대학 이념이다. 그는 '베를린 고등학문 시설의 내적 및 외적 조직의 이념'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이 시설(대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학문의 순수한 이념과 대결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룩할 수 있으므로…….

…… 학교가 기존 기성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비하여 고등교육 시설은 학문을 항상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그러므로 항상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학문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훔볼트는 '학문을 학문으로서 추구하는' 대학의 원칙을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구현하고 국가 또한 그러한 원리를 보호 장려해야 함을 역설한다. 연구를 위한 교수와 학생의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훔볼트의 이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19세기 당시에 있어서 그것은 극히 참신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훔볼트의 대학 이념이 곧 그대로 독일로 하여금 19세기 과학혁명의 주역으로서 앞장서게 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 대학의 체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학문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는 綜合大學(universitas litterarum)의 특색이 짙다. 슈라이어에라파헤르는 그의 대학 구상의 머리말에서 "갖가지 종류의 지식뿐만 아니라 통일적인 학문이라는 것도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학문은 "모든 지식이 필연적으로 통일체여야 한다"는 자각 위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념론적인 이상주의 철학과 깊이 연관된 학문의 유기적 통일성의 주장은 19세기 전

후의 모든 독일의 대학 개혁론자들에 공통된 현상이었거니와 그러나 그러한 학문관이 바로 그 대로 독일 과학의 발전을 뒷받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철학을 여러 과학의 기초 학문으로 포방하는 독일의 학문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증 과학의 발달을 가로막는 역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가에 의하면 "1820년대 말에 시작된 실증 과학의 등장은 이러한 철학(이상주의 철학)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의 결과였다"고 한다. 그는 오히려 독일 대학의 경쟁 원리(대학과 대학간, 교수와 교수간의) 속에 독일의 학문과 과학 발달의 원동력을 찾는다. 즉 그는 각 대학이 저마다 앞을 다투어 뛰어난 연구 업적을 올린 교수를 우대 '초빙(Ruf)'하며,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수·원의 교수·사강사간에 연구를 둘러싼 격렬한 경쟁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독일 학문의 진정한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데 독일 학문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려놓은 대학의 업적주의적 경쟁 원리(publish or perish)가 실은 교수의 인사권이 학부 교수회에서 서부터 문교 관료에게 옮겨진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은 실로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것이다. 교수 선발이 학부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따르는 정실 인사·파벌 인사의 폐단을 훔볼트도 우려하여 "대학 교사의 임명은 전적으로 국가의 수중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거니와 교수 선발권을 관장한 문교 관료는 대체로 객관적인 연구 업적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에 있어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문에 대한 업적을 지향하여 문자 그대로 연구실에서의 고독한 싸움을 하여야 하였다. 이것이 과학혁명에 연결되었으며 그 주역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하고 그리하여 현실의 일상 생활에는 극히 무관심하였던 피백스러운 저 19세기의 독일풍 敎授들이었다. 「19세기 독일사」의 저자인 F. 슈나벨은 이제 강의가 자명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새로운 인식을 창출하는 극장으로 화하였다고 교묘하게 지적하였거니와 이것은 독일 대학의 연구적 성격과 'Wissenschaft'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그와 관련하여 우리들은 또한 독일 대학의 강의에 있어 주

류를 이룬다고 할 세미나(Seminar)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극히 많은 學會誌와 學派의 존재도 여러 학문과 과학의 융성에 크게 자극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Wissenschaft'의 원리에 의해 연구되고 교수되는 베를린대학의 발전은 독일로 하여금 근대 여러 과학의 선두에 서게 하고,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1880년대에 들어서는 한 학기를 독일 대학에 체류하는 시대도 있었다. 독일 학계의 우위는 자연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독일로 하여금 '학문의 나라'라는 명예를 안겨 주었다.

이제 우리들은 영국 학계에 눈을 돌려 보자.

1852년 뉴우만(Cardinal Newman)은 「대학의 이념」(1852~'58)에서 대학이란 “모든 지식과 과학, 사실과 원리, 연구와 발견, 실험과 사색을 고도로 보호하는 능력이며 지식의 영역을 정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 침해나 굴종이 행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소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을 생각하는 한 뉴우만은 과학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대학관을 피력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추기경에게 있어 대학은 학문적 승원으로서는 그는 ‘교양으로서의 지식’이 염두에 있었을 뿐 ‘실용을 위한 지식’은 그의 관심 밖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되풀이하여 강조하였다. ‘지식은 그 자체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물론 영국의 전통적 대학관과 교육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도 영국의 학계는 뉴우만과 더불어 ‘효용’을 위한 지식은 대학 밖의, 시정의 지식이라는 편견을 고집하고 있었다. 중세의 自由學藝(liberal arts)에 기초를 둔 전적으로 인문주의적인 지식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영국 학계의 고질적 인습이 결국 저 베이컨이나 뉴우튼의 모국으로 하여금 19세기에 있어 과학적 후진국으로 담보하게 하였다.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양 대학의 칼리지제도에선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영국 대학교육의 기본 목적이 사회 엘리트 계층의 인간 양성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나 칼리지는 그 평의원 혹은 연구원(fellow)을 선발하는 데 있어 知的 능력과는 별개의 기준에 의해 행하였다.

지적 능력은 단지 古典學의 소양이 있으면 족하였다. 그리고 교사단은 영국 국교에 속하는 성직 독신자들로 구성되었다. 18세기말에 이르도록 대학에서 교수되는 자연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에 국한되고 있었다. 19세기초에 신설된 화학 강좌의 수강 학생은 겨우 12명에 불과하였다. 학생들의 대다수는 국교회의 성직 지망생이었다. 대학교육은 여전히 전문교육이 아닌 교양교육이었다. 그러나 19세기초에 있어 과학 사상은 대학 밖에서 일반 公衆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었다. 잉글랜드와는 달리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는 각 과목이 전문가에 의해 전문직업적(professional)으로 강의되고 자연과학에 큰 관심을 지녔다. 그리하여 그 과목들은 지도성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으나 교과과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전 대학생(4천 명)의 대다수는 14세만 되면 대학에 입학될 수 있었던 생도들이었다.

영국에 있어 과학과 기술에 열정을 지녔던 사람들은 비국교도들이었으며 그들이 옥스-브리지에 입학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하여 더욱 과학 혁명은 대학 밖에서 수용될 수밖에 없었으니 ‘대학은 어제를 반영할 뿐 내일을 비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영국에서의 과학 혁명의 수용에 큰 계기가 된 것은 1826년의 런던대학의 창립이다. 런던대학은 종파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다. 그 교과과목은 고전학 및 수학에 더하여 철학·경제학·법학 및 실험 과학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동 대학은 그 창립 목적에 있어 교양교육을 표방하였으며 학자나 전문가 양성이 아니었다. 베를린대학의 훔볼트 이념, 즉 인문주의를 모델로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1826년 당시만 하여도 베를린대학의 인문주의적 측면이 학문 연구의 측면보다도 영국 학계에는 더욱 부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1840년 글라스고대학에 工學의 한 강좌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동 대학 평의회는 이 강좌의 교수에게 교실을 제공함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 강좌는 1861년까지도 인문학부에 예속되었다. 케임브리지에는 1875년까지도 공학 강좌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든 소극적인 국가 후원으로나



마 기술과 과학은 서서히 영국 대학에 교과과정의 자리를 얻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이념적으로는 독일의 대학 개념, 즉 연구 센터로서의 대학 개념의 수용이다. 대체로 1870년까지 독일적 대학 개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영국 대학은 이제 전문가를 배출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영국적 교양 이념의 극복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의 진흥이라는 실용적 목적도 대학의 연구 기능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과학이 기술과 더불어 상류 계층의 관심 밖이었음은 세기말에 있어서도 여전하였다. 1875년 근대 위생학의 정립에 기여한 과학자인 L. 플레페어 같은 인물도 “문학의 域은 사회의 엘리트 계층 속에 쌓아 올려져야 한다. 그러나 과학의 성은 국민의 중류 계층에 의해 쌓여져야 한다”라고 말하였거니와 20세기에 이르도록 영국의 지도 계층은 과학과 기술을 경시하였다. 老帝國은 知的 영역에 있어서 먼저 쇠퇴되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대학교육에의 대담한 수용은 프라그마티즘의 나라 신흥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 3. 미국에서의 ‘多元大學’의 출현

현대를 특징짓는 것은 고도의 기술산업화 현상과 대중사회적 상황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과학화, 사물의 기술화를 초래하고 모든 실무에 학문의 침투를 가져왔다. 그 결과 현대 기술산업 사회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대학의 구조 전환이 요구되었음은 또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기술산업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의 주요 과제는 직업교육에 집중되었으니, 특히 생산과 연구, 경제와 학문이 연결되고 이것은 교양 이데올로기와 정신 과학에 중점을 두었던 중세적인 컬리지나 근대적인 유니버시티와는 그 이념과 조직 및 체제를 달리 하는 새로운 대학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른바 멀티버시티(multiversity, 多元大學)의 대두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기술산업화와 대중사회를 제일 먼저 실현한 미국에 있어 선구적으로 성장 발전하였음은 또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미국 대학의 발자취를 따라

서 산업 사회에서의 대학의 변모 과정과 다원 대학의 특성을 살펴 보자.

원래 미국 대학은 영국의 옥스—브리지를 모방하여 컬리지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고전 중심의 교과과정에 더하여 목사 지망의 학생들에게는 칼빈 신학이 교수되었다. 이러한 영국풍의 보수주의적 대학의 중심은 예일대학이었다.

그러나 일찍부터 미국적 실용주의 교육의 필요성이 주창되었다. B. 프랭클린은 ‘청년에 가장 유용한 교양’을 역설하고 농업인과 생업인의 양성 및 과학적 탐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실용주의적 기풍과는 달리 대학은 영국 대학의 학풍에서 좀처럼 해방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에 있어서조차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신학부·의학부·공학부는 학생의 부족에 시달렸다. 미국 대학이 고등 교육, 즉 교양 과목(liberal arts)이라는 영국 대학의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문적 학술 연구 기관으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1880년 이후에 속한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862년의 모릴(morill)법을 통한 州立大學의 탄생이다.

주립대학은 미국 산업과 서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농업과 공업교육에 중점을 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발족되었다. 모릴법은 “지난날 무시되어 온 광범위한 영역을 교육과 결부시켰다. 대학에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고 더욱 활동적인 것으로 하였다”라고 당시 평가되었거니와 그 법안의 성립과 주립대학의 출현은 ‘빵을 위한 학문’을 완강히 거부하여 응용 학문을 대학에서 배제하여 별개의 전문대학, 즉 프랑스의 고등이공과 학교 및 독일의 공과전문대학(Technische Hochschule) 등을 만든 유럽과는 달리 대학에 공학부와 농학부 등을 신설하여 고등교육 근대화의 초석을 쌓아 올렸다.

미국 대학의 근대화는 미국이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 즉 공업 입국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및 대중화 현상이 진전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학의 근대화가 미국의 경우, 특히 기술산업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노선에서 취하여졌음은 국

히 주요한 의의를 지닌다.

산업 사회에 부응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대학으로 우리들은 1865년에 창립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뉴욕의 코넬대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MIT는 산업계의 경영 관리자 및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정치·사회 관계의 체계적 연구와 과학적 방법의 과정에 대한 정통'을 동일하게 중시하며 사회공학부를 비롯하여 경영학부, 인문사회학부가 그 주류를 이루어 오늘날 고도 기술산업 시대의 대표적 대학으로 그 명성이 세계적인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코넬대학의 경우는 민중의 대학을 표방하여 공학부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제1차 대전 뒤에는 가정학부·교육학부·영양학부·간호학부·경영 행정학부·산업 노동관계학부, 그리고 제2차 대전 뒤에는 호텔경영학부를 신설하였다. 대학과 산업 사회의 연대 강화는 하바드대학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었다. 하바드에서도 일찌기 경영학부를 신설하였으며, 콜롬비아대학의 경우는 약학부·저어널리즘학부·건축학부를 증설하였다. 이제 대학은 교양주의를 청산하여 기술과 산업을 구조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지식과 전문 인재를 개발하는 데 그 주력을 다한다. 이러한 대학의 혁신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지니며 등장한 관리자적 중산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지난 날의 교양주의 중심의 대학이 전통적 신분 사회를 반영하여 일부 엘리트층의 사회적 특권과 특권을 위해 기능한 것과는 본질적 차이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 고등교육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이다. 교육 내용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문호는 여전히 개방적이 되지 못하여 중산층 이상의 자제들에 국한되었다. 1770년대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과 같은 연령의 청소년들(19세기에 있어서도 15~16세에 입학이 허용되었다)과의 비율은 50대 1인 미만이었으며 1889~'90년간의 총 대학생수는 12만 2천, 1899~1900년간은 16만 8천, 그러던 것이 1909~'10년간에는 26만 7천으로 증대된다. 그러나 1900~1910년간의 실업계 엘리트 중 60%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만약 실업계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대학에 전혀 가

지 않든지 혹은 명문 25개 대학에 들어가라"는 말이 당시에도 공공연히 일컬어졌다.

그러나 중산층 출신의 대학 진학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반화된 것은 미국이었으며,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선 1930년대에는 여학생과 흑인 학생의 모습도 캠퍼스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대학의 특징은 '응용' 연구에 주력하여 이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순수 이성적인(rational) 것과 과학적인 것과의 구별이라는 종래의 학문과 지식의 개념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비단 대학과 사회의 벽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적극적으로 대학내에 끌어들이므로써, 단순한 '학생과 교수의 공동체'가 아닌 시민 대학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1차 대전 직전에 농촌과 도시 문제에 관한 공개 강좌가 여러 대학에서 일반 시민을 수강생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민 공개 강좌의 활발한 운용은 미국의 대학 기능의 주요한 요소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920년대에 여러 대학이 마련한 운동부도 또한 대학의 벽을 허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많은 대학에 기숙사가 생기고 학생회관, 학내 경기장, 학생도서관, 학생 상담소 등의 시설이 증설되고 토론회, 연극, 문예지 발간 등이 학생 자치회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진 것도 이미 제1차 대전 이전에 속한다. 대도시 속에서의 대학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다원 대학의 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1930년대의 경영 혁명은 미국 대학으로 하여금 경영인의 에토스라는 시대 정신과 더욱 친숙한 관계를 맺게 하였다. 그리고 '30년대말에는 6인 중 1인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그 절반이 졸업하였다.

1940년대 이래 세계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과학 기술적으로 뒷받침한 미국형 대학의 전형적 모델인 캘리포니아대학을 살펴 보자. 동 대학—1970년대에 이르러 10만 학생과 4만을 넘는 교수·연구원 및 직원에 몇몇 분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특수 연구소와 실험장, 1백 개소 이상에 걸친 활동, 50개국 이상의 해외에서의

플랜, 그리고 1만에 가까운 강좌—은 맘모스 대학이고, 산업 문명을 주도하는 두뇌의 거리, 미상불 知能都市(ideopolis)이다. 캘리포니아대학은 대학인 동시에 연구소 집단, 직업 훈련소, 교원 양성소, 사회 사업 및 사회 운동의 추진 기관, 그리고 스포츠 센터, 서어비스 센터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윈 대학의 복합적 성격은 캠퍼스의 담을 없애고 주립대학의 경계는 바로 州의 경계라고 할 만큼 그 영역은 무한대로 넓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체제에 혁신을 초래하여 특히 學外者에 의한 대학 관리와 경영(lay government)을 초래하였다. 산학협동·관학협동·군학협동 등을 비롯한 대학의 사회적 확대는 대학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니 靑島の 경우에는 졸업생·기부자·재단·연방 정부 기관·직업 단체·기업, 공립의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州 재무부·지사·의회 그밖에도 농업조합·동업조합·學區 주민 등이 저마다 대학 운영에 개입하여 학외자 이사회 제도가 마련된다.

이상과 같은 다윈 대학의 잡다한 체제나 구성 및 성격에 대해서는 학내외로부터의 비판의 소리가 당연히 높다. 교육 개혁자인 카아(C. Kerr)가 지적하였듯이 다윈 대학은 모순에 찬 조직이다. 그 모순은 특히 대학 목적의 불투명함에서 연유된다고 할 것이며 명확한 대학 이념의 결여는 학문 연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하여금 대학내에서 큰 권한을 주장하는 부조리를 낳았고 「대학혁명」의 저자인 리이스만(D. Riesman)이 지적한 바 대학인 자신 속에 산업계의 기준을 스스로에 적용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을 초래하였다. 대학은 기업의 요청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기업에 의한 대학 지배의 위험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은 때로는 사회에 순응하고 봉사, 추종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지나치게 대학 밖의 일에 관여한다. 지난 날의 대학에는 공동의 비전이 존재하여 그것이 학생과 교수간의 유대를 돈독케 하였다. 그러나 오

늘날 현대 사회에 특징적인 正體意識 내지 일체감의 결여는 대학에 있어서도 심각하다.

이제 우리들은 다윈 대학이 배출하는 미국 지식인의 성격에 관해 생각해 보자.

고도 산업화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립성이 박탈 당하는 조직이라는 그들을 몰살됨 없이 각 영역에 쳐 놓는다. 문화 활동도 그 예외는 아니며 지식과 관념도 상품의 생산과 유사하게 창출된다. “……노동은 노동자에게 있어 外的이다. 즉 노동은 그의 본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함으로써 자기를 긍정하지 않고 역으로 부정한다. 그는 행복감이 아니라 불행의 감정을 지닌다.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자유로이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육체를 피로케 하고 정신을 황폐화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의 마르크스의 疎外의 관념이 지식인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밀즈(C.R. Mills)는 “미국의 지식인은 엄청난 좌절에 맞서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휴즈(H.S. Hughes)는 “지식인은 폐물이 되었는가?”하고 분명히 묻고 있는 것이다. ‘본래 그 활동이 실제적인 목표의 추구를 지향하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줄리안 방다(Julian Benda)는 ‘지식인(clerics)’이라고 하여 지식인을 ‘聖化’하였거니와 그 환상적 지식인상은 사멸된 지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장치와 동일하게 합리화되고 통합화된 문화 장치에 의해 지식인은 馴育되고 조종되어야 하는 것일까? 자유로이 사색하는 單獨者로서의 지식인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기술과 과학을 인간의 전체성에서 이해하는 모랄이 요구되거니와, 그러한 휴머니즘의 바람과는 아랑곳 없이 대학이 능률이라는 척도로 專門 바보를 생산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현대 대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고도 기술산업의 사회 상황 속에서의 대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의 전망은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물음과 깊이 관련되어 행해져야 한다. \*